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 간의 통합적 영향관계*

박성복**

본 연구는 농촌생활만족도를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변인으로 보고 농촌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요인들의 통합적 영향관계를 밝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후 농촌생활 적응관련 요인으로서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귀농인의 귀농결정을 위한 농촌이주 동기의 단계인 농촌흡입요인과 도시배출요인 및 사전정책지원 요인, 농촌이주를 위한 탐색단계인 귀농준비도, 적응과정의 단계인 사후정책지원 요인과 정주만족도 등을 설정하였다. 이들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가를 검증한다. 특히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파악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확인함으로써 귀농활성화와 귀농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 마련에도 기여한다.

주제어: 농촌생활만족도,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통합적 영향관계,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귀농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농촌생활의 적응이라 할 수 있고, 농촌생활만족도는 그러한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근 인구이동의 동향을 보면 농촌에 유입되는 귀농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22,703가구가 귀농했으며(농림부, 2006), 2009년 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012S1A5A2A01016299).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sungpark@daegu.ac.kr).

해에 4,000명 이상이 귀농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생계를 위한 전업농 형태, 그리고 겸업농업형 및 생태지향형 등의 과거 귀농 형태(강대구 외, 2006)와는 달리, 2005년 이후 최근의 귀농은 도시환경에 대한 불만과 웰빙 바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베이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회귀현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충남발전연구원, 2010). 나아가 최근의 귀농자들은 농업활동의 영위보다는 노후생활에서의 쾌적한 삶의 추구를 위해 귀농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고령 세대의 귀농은 농촌생활 자체를 선호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주가 많다. 보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찾아 이주하는 중장년세대에게 농촌은 평생직장을 약속하는 새로운 일터이며 인생을 설계하는 희망의 장이 되기도 한다(김성수 등, 2004; 이동화, 1998).

더구나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일하는 노인’이나 ‘노인의 생산성’에서 찾는 점에서 볼 때, 은퇴 후 귀농인들에게 농촌은 농업이라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다(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도시근로 은퇴자들의 농촌이주 현상은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농촌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유입된다는 의미가 있다(김성수 등, 2004; 김형용, 1998; 정철영, 1999). 농촌이주로 새로이 영농활동을 하는 도시은퇴자들은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유지기반이 붕괴되어 온 농촌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향후 농촌문화의 전승에 기여할 것이다. 농업은 하나의 ‘직업’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근간으로서 전통문화보존의 장이기도 하다(농촌진흥청, 2004). 셋째,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경제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시은퇴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결국 귀농을 통한 농촌 인구유입은 인구도 적고 게다가 고령화된 농촌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농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도시은퇴자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은 개인적으로는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되며, 사회적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중요한 의미들을 지닌다. 특히 요즈음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은퇴 후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은퇴자들의 실제 농촌이주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별로 없으며,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준비 없이 농촌의 낭만적인 삶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무분별하게 귀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농촌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귀농하여 농촌에 살고 있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재탈농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농촌이주를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이주 후 적응과정에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므로, 그러한 여러 요인들과 관련하여 귀농인의 적응실태 내지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귀농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귀농인의 귀농 후 농촌생활 적응과 관련된 농촌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귀농관련 연구들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연구 또한 별로 없으며, 더구나 관련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생활만족도를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변인으로 보고 그 관련된 요인들의 통합적 영향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도시직장인과 실제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귀촌·귀농을 위한 여러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도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농촌생활만족도를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적응은 사람의 욕구가 환경 속에서 만족될 때 일어나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된다. 특히 귀농적응이론에 의하면 귀농지역에서 정신적 불안극복,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확보, 농촌생활 양식 및 문화가치의 습득으로 귀농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때 적응이 이루어진다(이동하, 1998). 귀농자의 이주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정도가 귀농인구 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Lee & Kim, 1980), Moore(1970)는 귀농인구의 이동과정을 잠재적 이동, 탐색과 평가, 적응 등 3 단계과정으로 설명하였고, Fielding(1974)은 이주과정을 이주동기의 형성, 이주의사결정, 이주실행까지의 이주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적응단계의 두 과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을 하거나 재이주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후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첫째 귀농인의 귀농결정을 위한 귀농동기의 단계인 농촌흡입요인과 도시배출요인 및 사전정책지원 요인, 둘째 농촌이주를 위한 탐색단계인 귀농준비도, 셋째 적응과정의 단계인 사후정책지원 요인과 정주만족도 등을 설정하였다. 귀농을 결정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해 가는 전체

적인 과정에서 이들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모두 파악함으로써 통합적인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도시인에서부터 귀농인으로 되어가는 전체적인 과정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선행연구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귀농의 개념

귀농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하므로, 귀농 전의 농촌거주경험이나 농사여부가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대개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고, 귀농후의 농사여부를 주로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부분도 일부 연구자는 농사만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경우 귀농, 농사를 짓지 않고 거주 장소로만 선택한 경우는 귀촌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농촌에 사는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농사일을 경험하게 되므로 농촌에 살려고 내려온 귀촌의 경우도 귀농자로 포함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촌에 살았던 경험 없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진 경우도 개념상의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역시 귀농으로 볼 수 있다(서만용·구자인, 2005).

요컨대 귀농유형은 크게 U형, J형, I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농촌에서 떠났다가 고향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U형, 타향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J형,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경우는 I형으로 본 경우(서규선, 변재면, 2000; 김성수 외, 2004; 강대구, 2006)와, 농촌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I형,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J형(조홍수, 권승구, 1998)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경우는 I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귀농을 ‘도시지역에 살다가 농촌 환경이 유지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경우’로 정의한다.

2. 귀농의 1차적 동기요인: 농촌흡입요인과 도시배출요인

최근의 귀농을 살펴보면, 전과는 달리 각박한 도시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 및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인한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귀농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농촌이주는 농촌흡입요인과 도시추출요인이라는 두 가지 동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에 있어서 농촌흡입요인은 쾌적한 자연환경, 적은 생활비, 조용한 전원생활 등 농촌의 매력에 이끌려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을 의미한다(서규선·변재면,

2000). 박영일(1998)의 연구에서는 제2의 삶의 목적으로 귀농을 하려는 ‘전원생활이 좋아서, 영농승계, 노후대책을 위해서’ 등의 이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김성수 등의 연구(2004)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후대비를 위해,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해, 영농승계를 위하여’ 등 농촌이주의 긍정적인 동기인 농촌흡입요인이 다수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정철영(1999)의 연구에서도 역시 귀농 희망자들의 귀농결정 이유를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순덕 등(2005)의 연구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이유는 농촌의 환경적 흡입요인이 큰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농촌이주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이 좋거나 본인과 연고가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에 있어서 도시배출요인은 농촌의 매력에 이끌려서 귀농한다기보다 환경오염, 높은 물가, 주택난의 부담을 지우는 도시생활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도시의 삶에 지쳐 농촌으로 귀농하는 것을 의미한다(서규선·변재면, 2000). 이시자(2010)는 귀농동기 요인을 인간미 상실, 건강 손실, 공간적·시간적 여유 부족, 자아정체감 상실 등의 도시배출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촌이주자의 농촌유입을 도시로부터의 배출요인과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들에서는 도시의 소음, 탁한 공기, 오염된 식수, 높은 범죄율, 물가, 주택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등이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이주케 하는 추진요인으로 들었다. 또한 귀농자의 귀농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소득감소 원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힌 연구도 있다(임혜영, 1999).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귀농의 일차적인 동기와 관련되면서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농촌흡입요인과 도시배출요인을 설정한다.

3. 귀농의 2차적 동기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과 사후정책지원요인

김정섭(2009)은 귀농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이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귀농을 촉진하려는 사전지원의 정책기획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NGO가 협력하는 사후지원의 거버넌스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귀농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조직화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농촌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연성적 정책프로그램(상담, 교육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니어 계층이 이주를 결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분석한 김승희(2009)의 연구를 보면, 생활환경의 안전성 및 생활문화시설의 편리성과 함께, 지자체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형용(1998)은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귀농자가 농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려면, 귀농자의 영농경험 부족에 따른 귀농대책 수립으로 영농실패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단시일

내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귀농자들은 귀농에 앞서 영농활동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귀농인에게 좀 더 도움을 줄만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의 영농은 단순작업이 아닌 오랜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만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농림부, 2009).

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지원체계를 귀농에 대한 2차적 동기요인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귀농결정 시점을 중심으로 사전요인과 사후요인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사전정책지원요인은 귀농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이나 교육제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후정책지원체계는 귀농을 결정한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비용자 지원이나, 농업인턴지원, 정착지원 등을 포괄한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후정책지원요인은 엄격히 보자면 귀농결정 후 정착과정의 단계에 관련된 변인으로 봐야겠지만,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전 정보수집으로 인해 귀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귀농인이 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지원요인을 사전과 사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귀농준비도

귀농준비도란 귀농결정을 한 후 실제 농촌이주를 위해 영농에 필요한 지식, 지역에 대한 탐색, 경제적 여건 등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준비한 정도를 뜻한다. 농촌이주 전 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귀농을 위한 사전준비, 영농교육, 귀농지역 결정, 귀농을 위한 적절한 경제상태 등이 있다(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농촌이주를 위한 사전준비와 연습과정을 가진 귀농인들은 대체로 농촌의 삶과 경제적인 성취 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반면, 계획 없이 귀농하거나 수동적인 이들은 농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규선·변재면, 2000). 귀농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계획, 사전 농촌생활경험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영농교육, 적절한 귀농지역의 선정 등은 귀농자의 정착에 중요할 것이다(정한모, 2002).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귀농자의 대다수는 귀농교육이 농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정지웅·임형백, 2000; 박영일, 19988). 따라서 귀농준비도가 정주만족도나 농촌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 정주만족도

정주만족도란 일반적으로 귀농인이 귀농 후 농촌 지역사회의 정주에 대한 전반적 및 누적적 만

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주’란 ‘정주생활권’이라는 말이며, 그것은 정주권과 생활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정주권’이란 지역특성을 내포한 일정영역에서 역사·문화적 전통이 형성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안정되어 주민과 공간이 질서 체계를 이룬 공간이라 할 수 있다(신대균, 1984). 그리고 ‘생활권’이란 사람이 하루를 주기로 활동하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생활권이라 함은 ‘정주권(定住圈)’과 ‘생활권(生活圈)’의 개념이 합쳐져 인간이 일정한 생산, 생활을 벌이는 구체적이며 접촉의 빈도가 높은 공간단위 생활행동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변양석(1995)은 정주생활권이란 지역주민들이 최소의 거리에서 그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주민들의 일일생활권으로서 국토공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촌 정주생활권은 농촌적 정주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주만족도’란 농촌정주생활권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 본 김승희(2009)의 연구에서 생활환경의 안전성과 생활문화시설의 편리성, 지자체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등 3가지가 시니어 계층이 농촌이주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크게 보아 정주요인에 해당한다. 임혜영(1999)은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생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그리고 교통편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요인들 역시 정주만족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시자(2010)는 귀농자의 정주만족을 위해서 농촌에서의 적응을 강조하였으며, 농촌적응에는 의료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 노동복지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귀농자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게 하려면 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배려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농기계 수리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도 주장하였다.

이동현(2007)은 “농촌입지별 농촌정주생활요인의 비교연구”라는 연구에서 농촌지역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15km 기준으로 농촌중심도시권과 농촌중심 도시배후권으로 나누어 8가지 정주만족요인인 소득기회, 학교 및 사회교육, 의료, 복지, 문화, 여가, 상하수도 시설,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특히 농촌중심도시권의 경우에는 농촌생활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하수도 여건, 대중교통여건, 문화여건, 복지여건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농촌중심도시배후권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여건, 복지여건, 대중교통여건의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나 도시와 비교하여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여건이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6. 농촌생활만족도

생활만족이란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미한다(서병숙·이현, 1995). 결국 인간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서인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생활만족이란 ‘귀농후 농촌에서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며 과거 및 현재의 삶과 미래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귀농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귀농지역에서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귀농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적응 정도가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생활만족도가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관련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은퇴 후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이용되면서 노년기 적응이나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김태현,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은퇴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를 최종적인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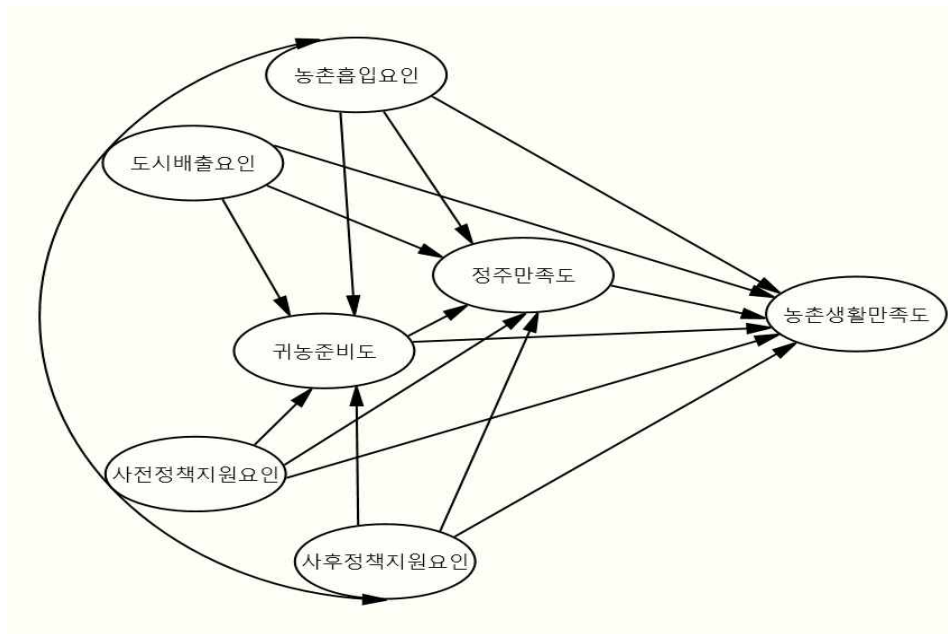
1. 개념의 선택과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로서 첫째 귀농결정의 1차적 및 2차적 동기요인들로서 농촌흡입요인과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과 사후정책지원요인 등 4가지, 둘째 농촌이주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귀농준비도, 셋째 정착의 단계에서 정주생활권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정주만족도와 외생변수인 사후정책지원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생활의 적응과 관련된 농촌생활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심리학 및 응용심리학의 분야에서 동기와 직무만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듯이(한덕웅, 1993), 귀농동기와 농촌생활만족도를 연관시켜 분석해 보는 것은 귀농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귀농대책의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검토된 농촌이주의 준비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귀농을 위한 사

전준비, 영농교육, 귀농상담과 교육훈련, 귀농지역결정, 귀농을 위한 적절한 경제상태 등(서규선·변재면, 2000; 정한모, 2002; 최원규·백승우, 2001; 구본석, 1999; 박영일, 1998; 이정관, 1998)은 귀농준비도와 사전정책지원요인에 포함된다. 농촌이주 후 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원관계, 농촌생활 인식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생활편의시설 등이 있는데(정한모, 2002; 신윤철·김동섭·배성의·윤준상, 1998; 서병숙·이현, 1995; 임혜영, 1999), 이러한 영역의 통합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주만족도와 사후정책지원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되 귀농을 통한 농촌생활이 정착되어가는 순차적 단계에 따랐다. 즉, 농촌이주 혹은 귀농의 초기 단계인 동기 단계와 농촌이주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단계, 농촌생활에 적응해 가는 적응과정의 단계, 그리고 최종적인 적응상태의 단계로 나누어 이전의 단계들이 이후의 모든 단계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다만 사후정책지원요인은 미리 앞선 정보수집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통해 이전의 귀농준비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주만족도가 농촌생활만족도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귀농준비도가 정주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단계에서 4가지의 귀농 결정 동기요인들이 농촌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접 영향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통합적 영향관계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모형은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 등은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귀농준비도는 정주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정주만족도가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제시한다. 관계도표 상의 화살표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15개의 직접 영향가설들과 17개의 간접 영향가설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물론 타원형 속의 변인은 구성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 의해 생성되는 잠재변인이 된다. 한편 경로분석에서 초기 외생변들인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그리고 사후정책지원요인 간에서는 당연히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그림에서도 네 변수들 간 6개의 상관선들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나, 하나의 상관선으로 네 변수들을 모두 접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관계성들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개념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통한 변수측정 도구들은 최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흡입요인의 측정도구는 서규선·변재면(2000)와 장덕기(2009)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전망요인, 쾌적한 자연환경요인, 전원생활동경요인, 웰빙생활요인, 고향정착희망 요인 등의 다섯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도시배출요인의 측정도구는 서규선·변재면(2000)과 장덕기(2009)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은퇴요인, 실직 및 사업실패 요인, 도시의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등의 환경요인, 도시의 높은 물가요인, 도시의 주택문제 요인 등 총 다섯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전정책지원요인 측정하기 위해, 송미령 외(2007), 박창석(2009), 이민수 외(2009)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보지원, 귀농절차지원, 영농교육지원, 농산물가격보장, 판매망구축, 주택구입, 영농정착자금지원 등 총 다섯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였다. 넷째, 사후정책지원요인의 측정도구는 강대구 등(2006)과 농림수산물식품부(201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귀농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인턴지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융자, 귀농교육지원 등 총 6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였다. 다섯째, 귀농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규선·변재면(2000), 정한모(2002), 최원규·백승우(200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농사교육, 정보수집, 귀농관련 연수참여, 농업관련단체 방문, 주변사람의 조언, 이웃과 친분노력, 귀농결심 시 가족찬성준

비, 자녀교육문제해결, 귀농자금준비 등 총 9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정주민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을 일, 건강, 안전, 주거생활, 환경, 복지/교육, 문화/여가 부문 총 7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정주민족도는 농촌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만족도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5년, 2010년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하고자 한 지표들과 장덕기(2010), 김승희(2010), 농림부(2000), 한경혜·윤순덕(2001)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구소득 만족, 현재직업(일)만족, 의료서비스 만족, 안전만족, 주택 만족, 교통여건 만족, 생활환경 쾌적성만족, 교양·직업교육 등의 평생교육만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만족, 문화. 여가 만족, 마을 사람들과 관계형성 등 총 11개 문항들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가 구성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최종적인 종속변수인 농촌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는 임창희(2005), 서병숙·이현(1995), 김태현(1994), 최성재(1986), Neugarten 등(1960), Bardburn(1969)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귀농인에게 행복감과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 심리상태에 관한 것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귀농결정에 대한 만족, 현재생활만족, 농촌생활 흥미만족, 농촌생활에서 인생만족, 장래 농촌생활 희망만족 등의 총 다섯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하였다.

3.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자들의 적응관련 변인으로 볼 수 있는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을 갖는 여러 요인들의 통합적인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베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경북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집의 방법으로 400명의 표본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서 2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7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한 달간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377명의 응답자 중 남성 응답자는 310명으로 82.0%이며 여성 응답자는 67명으로 17.8%였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85명으로 22.5%를, 50대가 120명으로서 31.8%를, 그리고 60대 이상이 172명으로서 45.6%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을 한 응답자의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본인+배우자인 경우가 전체의 49.3%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배우자+자녀의 경우가 28.9%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귀농인들의 교육수준으로는 고졸 이상이 전체의 86.2%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7.1%가 중하 또는 중 정도의 생활수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속성	빈도(%)	변수	속성	빈도(%)
성 별	남	310(82.2)	거주지	경산시	21(5.6)
	여	67(17.8)		경주시	23(6.1)
	소계	377(100.0)		고령군	14(3.7)
연 령	40 ~ 49	85(22.5)		구미시	13(3.4)
	50 ~ 59	120(31.8)		군위군	08(2.1)
	60 이상	172(45.6)		김천시	16(4.2)
	계	377(100.0)		문경시	9(2.4)
가 족 현 황	본인	53(14.0)		봉화군	21(5.6)
	본인+배우자	186(49.3)		상주시	26(6.9)
	본인+배우자+자녀	109(28.9)		성주군	23(6.1)
	본인+자녀	10(02.7)		안동시	24(6.4)
	본인+자녀+자녀가족	9(02.4)		영덕군	18(4.8)
	기타	10(02.7)		영양군	18(4.8)
교육수준	계	377(100.0)		영주시	27(7.2)
	무 학	5(01.3)		영천시	22(5.8)
	초등졸	47(12.5)		예천군	19(5.0)
	중 졸	85(22.5)		울진군	8(2.1)
	고 졸	146(38.7)		의성군	14(3.7)
	대학 이상	94(24.9)		청도군	18(4.8)
주관적 생활수준	계	377(100.0)		청송군	21(5.6)
	하	85(22.6)		포항시	14(3.7)
	중하	116(30.8)	계(21개시/군)	377(100.0)	
	중	137(36.3)			
	중상	31(08.2)			
	상	8(02.1)			
계	377(100.0)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에 도입되는 구성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한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은 구성타당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성타당도는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단일차원성 검증방법을 활용하였다. 끝으로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가설검증을 위해 AMOS 18.0이 이용되었다. 먼저 전체 모형의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표준화된 경로계수의 산출을 통해 개별 경로의 직접영향 및 간접영향 가설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각 구성개념들을 개념상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우선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는 하위영역별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구성개념의 수렴타당도를 확증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크론바흐 알파(α) 계수법을 사용하였다.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항목 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값과 다중상관자승(SMC) 값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변수측정에서 제시된 구성개념의 측정항목들이 <표 2>와 같이 다소 조정되었다.¹⁾ 조정결과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660 이상으로 통상적인 기준인 0.5를 충족하여 타당도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0.616을 상회하므로 모든 구성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요인분석 타당도검증 및 신뢰도검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변수번호)	표준화 요인부하량(h_i)	공통성 (h_i^2)혹은 SMC	AVE	α 계수
농촌흡입요인(3/5) (x1)	자연흡입(x1.1)	0.864	0.747	0.730	0.816
	전원흡입(x2.2)	0.869	0.756		
	웰빙흡입(x3.3)	0.832	0.693		
도시배출요인(5/5) (x2)	은퇴배출(x2.1)	0.779	0.607	0.660	0.616
	실직배출(x2.2)	0.736	0.542		
	환경배출(x2.3)	0.844	0.713		

1) 각 측정변수의 SMC 값은 표준화 요인부하값을 제곱한 값으로서 구성변수가 각 측정변수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SMC 값은 높을수록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며(배병열, 2009), 본 연구에서는 0.5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AVE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로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인 SMC의 평균을 나타내며, 그 크기가 0.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이학식·임지훈, 2007)

사전정책지원요인(5/5) (x3)	물가배출(x2.4)	0.864	0.746	0.680	0.842
	주택배출(x2.5)	0.846	0.715		
	정보지원(x3.1)	0.822	0.675		
	절차지원(x3.2)	0.845	0.714		
	교육지원(x3.3)	0.835	0.697		
	가격지원(x3.4)	0.824	0.679		
사후정책지원요인(6/6) (x4)	정착지원(x3.5)	0.782	0.611	0.674	0.841
	귀농정착지원(x4.1)	0.822	0.675		
	농가주택수리비지원(x4.2)	0.845	0.714		
	농업인턴지원(x4.3)	0.835	0.697		
	농업창업자금지원(x4.4)	0.824	0.679		
	주택구입비용자지원(x4.5)	0.782	0.611		
귀농준비도(7/9) (m1)	귀농교육지원(x4.6)	0.818	0.669	0.696	0.781
	교육준비(m1.1)	0.832	0.692		
	정보준비(m1.2)	0.792	0.627		
	연수준비(m1.3)	0.859	0.738		
	방문준비(m1.4)	0.871	0.759		
	친분준비(m1.5)	0.796	0.634		
	자녀교육준비(m1.6)	0.809	0.654		
귀농자금준비(m1.7)	0.875	0.766			
정주만족도(8/11) (m2)	소득만족(m2.1)	0.854	0.730	0.734	0.742
	일만족(m2.2)	0.887	0.787		
	의료서비스만족(m2.3)	0.826	0.682		
	교통여건만족(m2.4)	0.864	0.747		
	쾌적성만족(m2.5)	0.862	0.743		
	복지서비스만족(m2.6)	0.868	0.753		
	문화여가만족(m2.7)	0.833	0.694		
	관계형성만족(m2.8)	0.859	0.738		
농촌생활만족도(5/5) (y)	결정만족(y.1)	0.876	0.768	0.760	0.918
	생활만족(y.2)	0.902	0.813		
	흥미만족(y.3)	0.893	0.797		
	인생만족(y.4)	0.865	0.748		
	희망만족(y.5)	0.807	0.651		

2. 경로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상대적합도 지수는 변수들 간에 관계가 없음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인 독립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절대적합도 지수는 독립모형과의 비교 없이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합치되는가를 절대적으로 평가한다. 적합도 지수를 선택할 때에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태제, 2007: 334-5). χ^2 값(32.14)으로만

보면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나, 다른 지수들 값 모두가 수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²⁾

〈표 3〉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기준		수용기준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χ^2 (df)/ p-value	p>0.05	32.14(0.00)
	GFI	>0.9	0.931
	AGFI	>0.9	0.942
	RMSEA	<0.05	0.047
상대적합지수	CFI	>0.9	0.964
	NFI	>0.9	0.917
	IFI	>0.9	0.953
	TLI	>0.9	0.927

3. 경로모형 가설의 검증결과 및 논의

1) 가설검증의 결과

〈표 4〉는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 등이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준비도가 정주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주만족도가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동기요인인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 및 사후 정책지원요인 등이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촌흡입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할수록,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이 클수록, 그리고 웰빙 생활과 건강문제를 중시할수록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농촌생활의 이점에 대한 사전의 기대가 클수록 귀농준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농촌이주 후의 정주생활권에 대한 만족도 크며, 끝으로 농촌생활의 적응을 나타내는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도시배출요인으로 본다면,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인하거나, 도시의 환경오염이나 소음공해로 인하거나, 그리고 도시의 높은 물가나 주택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을수록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게 된다.

2)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성태제, 2007: 334-5).

사전정책지원요인으로 보면, 귀농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귀농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거나, 농촌생활에 필요한 영농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쉽거나, 농산물 가격보장이나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거나, 주택구입이나 영농에 대한 정착자금을 지원해 줄수록 귀농준비도와 정주민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가 높다. 농촌이주 후 경험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후정책지원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귀농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인턴지원, 농업창업자금 융자, 주택구입비 융자, 그리고 귀농교육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귀농준비도와 정주민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농준비도가 정주민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사교육을 자주 받을수록, 농사기술이나 관련정보를 자주 수집할수록, 농촌생활에 관련된 연수에 자주 참여할수록,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을 자주 방문할수록, 마을 이웃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할수록, 귀농전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할수록, 그리고 귀농자금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정주민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표 4〉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t)	p	지지여부
귀농준비도	← 농촌흡입요인	0.313	0.251	5.281	0.000***	○
	← 도시배출요인	0.254	0.229	2.168	0.030 **	○
	← 사전정책지원요인	0.207	0.183	2.246	0.025 **	○
	← 사후정책지원요인	0.193	0.168	2.573	0.020 **	○
정주민족도	← 농촌흡입요인	0.154	0.135	2.805	0.005 **	○
	← 도시배출요인	0.173	0.144	5.253	0.000***	○
	← 사전정책지원요인	0.161	0.132	3.521	0.000***	○
	← 사후정책지원요인	0.781	0.151	3.876	0.000***	○
농촌생활만족도	← 농촌흡입요인	0.169	0.161	3.775	0.000***	○
	← 도시배출요인	0.144	0.121	3.290	0.001***	○
	← 사전정책지원 요인	0.158	0.121	2.577	0.010 **	○
	← 사후정책지원 요인	0.163	0.146	7.412	0.000***	○
정주민족도	← 귀농준비도	0.315	0.289	6.290	0.000***	○
농촌생활만족도	← 귀농준비도	0.358	0.311	6.481	0.000***	○
농촌생활만족도	← 정주민족도	0.401	0.392	8.160	0.000***	○

※ **p < 0.05, *** p < 0.001

셋째, 정주민족도가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할수록,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만족할수록, 교통여건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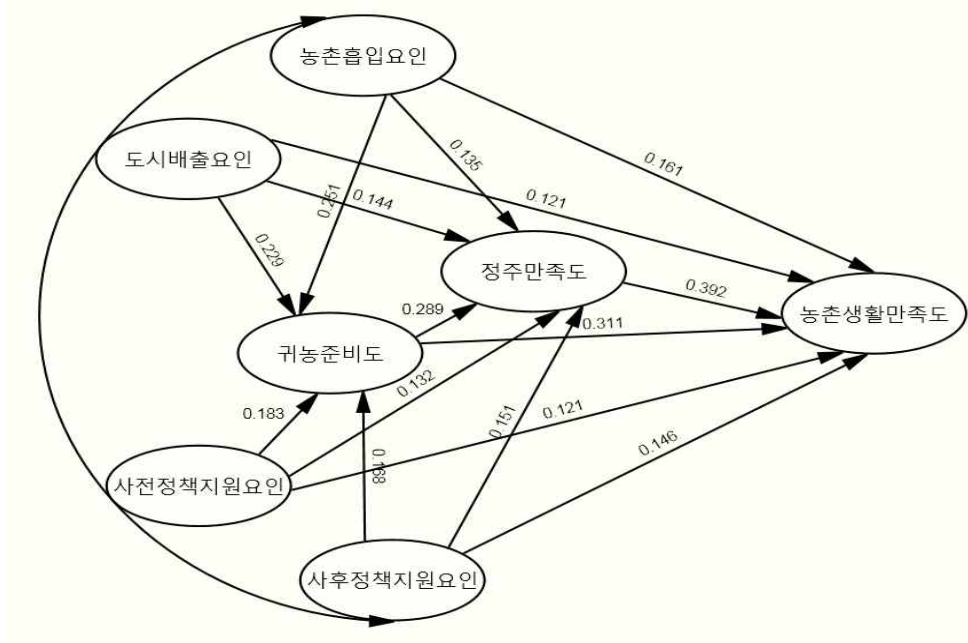
만족할수록, 생활환경의 쾌적성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할수록, 그리고 지역의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해 만족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이러한 통합모형의 검증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에 의하면 최초 단계에서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의 순으로 귀농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후정책지원요인, 도시배출요인, 농촌흡입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의 순으로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주만족도, 귀농준비도, 농촌흡입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및 도시배출요인의 순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귀농결정요인 4가지 모두가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를 매개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결정요인 변수 4개 모두와 귀농준비도 및 정주만족도가 농촌생활만족도에 여하히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그리고 사전 및 사후 정책지원요인이 높을수록, 귀농준비도가 높을수록, 또 정주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도 높아짐을 나타낸다. 여기서 특히 매개변수인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가 최종적인 종속변수인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간접영향에 관한 가설들이 모두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효과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내생 변수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각 변수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는 연구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귀농결정요인 변수들,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그리고 농촌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표준화 계수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농촌생활만족도에 농촌흡입요인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0.161이고 간접효과는 0.159로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농촌생활 만족도에 도시배출요인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0.121인데 비해 간접효과는 0.154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농촌생활만족도에 사전정책지원요인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0.121로 도시배출요인의 경우와 동일하고 간접효과는 0.154로 역시 간접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농촌생활만족도에 사후정책지원요인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0.14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간접효과는 0.130으로 직접효과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다섯째, 농촌생활만족도에 귀농준비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0.311로 두 번째로 높고 간접효과는 0.113으로 직접효과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여섯째, 농촌생활만족도에 정주만족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0.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결과 값



〈표 5〉 경로계수의 총효과 분석

구분	귀농준비도				정주민족도				농촌생활만족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순위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순위
농촌흡입요인	0.251	-	0.251	①	0.135	0.073	0.208	③	0.161	0.159	0.320	③
도시배출요인	0.229	-	0.229	②	0.144	0.066	0.210	②	0.121	0.154	0.275	⑤
사전정책지원요인	0.183	-	0.183	③	0.132	0.053	0.185	⑤	0.121	0.129	0.250	⑥
사후정책지원요인	0.168	-	0.168	④	0.151	0.049	0.200	④	0.146	0.130	0.276	④
귀농준비도		-			0.289		0.289	①	0.311	0.113	0.424	①
정주민족도		-							0.392		0.392	②

주) *****: 유의한 영향이 없음 / -: 해당사항이 없음

농촌생활만족도에 귀농결정요인 모두가 비교적 높은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귀농준비도와 정주민족도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수행하는 매개변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혜영(1999)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귀농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며 박공주 등(2006)의 연구에서 정주요인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과도 같은 결과이다. 다만 사후정책지원요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귀농준비도와 정주민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전체의 47.2%에 이르러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우선 귀농준비도에 대해서는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주민족도에 대해서는 귀농준비도, 도시배출요인, 농촌흡입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 그리고 사전정책지원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귀농준비도, 정주민족도, 농촌흡입요인, 사후배출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희찬 등(2006)의 연구결과 귀농동기요인으로 도시배출요인보다 농촌흡입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촌지역 본연의 기능에 의한 이주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민족도에는 도시배출요인이, 농촌생활만족도에는 농촌흡입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본연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전원생활에의 동경, 웰빙 트렌드 등의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동기가 된 귀농인에게는 농촌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은퇴, 실직, 환경, 높은 물가, 주택난 등의 도시배출요인이 귀농동기가 된 귀농인에게는 정주민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배출요인이 정주민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농촌지역 본연의 기능이 살만한 곳, 정주여건이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간접영향 가설들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간접영향 가설들

가설				표준화 계수	C.R.(t)	p(유의확률)	지지 여부			
정주민족도	←	귀농준비도	←	농촌흡입요인	0.073	5.281/6.290	0.000***	○		
	←		←	도시배출요인	0.066	2.168/6.290	0.030 **	○		
	←		←	사전정책지원 요인	0.053	2.246/6.290	0.025 **	○		
	←		←	사후정책지원 요인	0.049	2.573/6.290	0.020 **	○		
농촌생활만족도	←	귀농준비도	←	농촌흡입요인	0.078	5.281/6.481	0.000***	○		
	←		←	도시배출요인	0.071	2.168/6.481	0.030 **	○		
	←		←	사전정책지원 요인	0.060	2.246/6.481	0.025 **	○		
	←		←	사후정책지원 요인	0.052	2.573/6.481	0.020 **	○		
농촌생활만족도	←	정주민족도	←	농촌흡입요인	0.053	2.805/8.160	0.000***	○		
	←		←	도시배출요인	0.056	5.253/8.160	0.030 **	○		
	←		←	사전정책지원 요인	0.052	3.521/8.160	0.025 **	○		
	←		←	사후정책지원 요인	0.059	3.876/8.160	0.020 **	○		
농촌생활만족도	←	정주민족도	←	귀농준비도	←	농촌흡입요인	0.028	5.281/6.290/8.160	0.000***	○
	←				←	도시배출요인	0.026	2.168/6.290/8.160	0.030 **	○
	←				←	사전정책지원 요인	0.021	2.246/6.290/8.160	0.025 **	○
	←				←	사후정책지원 요인	0.019	2.573/6.290/8.160	0.020 **	○
농촌생활만족도	←	정주민족도	←	귀농준비도	0.113	6.290/8.160	0.000**	○		

※표준화계수는 각 경로 표준화계수를 서로 곱해서 구한 값이고, C.R.(t)는 경로별 값을 모두 표시했으며, 유의확률은 경로별 값들 중 가장 큰 것을 표시하였음.

※***<0.001, **<0.05

IV. 결론

본 연구는 농촌생활만족도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사후정책지원요인 등의 네 가지 귀농결정 요인들이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의 각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의 검토와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정리된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정책지원요인, 그리고 사후정책지원을 독립변수 군에,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농촌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로 구성된 직접영향 연구가설 15개와 간접영향 연구가설 17개를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보면 직접영향 연구가설들 모두가 채택되었다. 첫째, 동기요인인 농촌흡입요인, 도시배출요인, 사전 및 사후 정책지원요인 등이 귀농준비도, 정주만족도,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농준비도가 정주만족도 및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주만족도가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15개의 직접영향 가설들이 모두 채택됨으로 인해 17개의 간접영향 가설들도 당연히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네 가지의 귀농결정요인들이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 그리고 농촌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귀농준비도를 매개로 하여 정주만족도와 농촌생활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치며, 마지막으로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를 매개로 농촌생활만족도에 역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보면 첫째, 정부와 농촌지역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귀농정보, 귀농절차, 귀농관련 교육, 농산물가격보장과 귀농인의 정착지원 요인들이 정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귀농자원에게 종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결정요인들 중에서 도시배출요인에 속하는 은퇴, 실직, 환경, 물가, 주택난 등의 요인이 정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높은 실업률,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수준, 주택난 등의 귀농요인이 귀농 후 정주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귀농활성화 정책이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주택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시배출요인, 농촌흡입요인, 사전 및 사후 정책지원요인 등의 귀농결정요인들,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 모두 농촌생활만족도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귀농준비도와 정주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귀농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예정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귀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30대 이상의 일반 도시민에게 농촌과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도시민들이 부담 없이 농촌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팜투어 형식의 농촌체험에 정부예산의 투입이 효과적일 것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활발한 교류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동교류사업의 확대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정주민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정부의 귀농정책 설계에 있어서 종합적 정주민프라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응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농촌이주결정 단계, 농촌이주 탐색·준비 단계, 적응과정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동안 귀농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단편적인 연구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귀농인의 적응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요인들 또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귀농한 사람들의 농촌생활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기 도시직장인은 물론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이주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표집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관해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이 전국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도 경북의 농촌 시·군에서 얻은, 충분하지 못한 표본크기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향후 지역적으로 골고루 구성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대구.(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38-2. 23-53.
- 강대구·김경남·김민수·이웅·변규식.(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위대책방안연구」. 농림부.
- 구본석.(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개발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승희.(2010). 강원도로의 귀농·귀촌 의식 및 유입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76호.
-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정섭.(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0. 205-223.
- 농림부.(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2009). 「귀농·귀촌 종합대책」.
- 농림수산식품부.(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 농촌진흥청.(2004).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 및 변화분석」.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박공주·김양희·박정윤.(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 박공주·윤순덕·강경하.(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 박광희·한해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11. 43-61.
- 박상철 편.(2002). 「한국의 백세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일.(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석.(1999). 「농촌정주공간의 이용특성과 개선필요도 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양석.(1995). 농촌정주권 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 계획. 「한국농촌계획학회」. '95심포지엄 도농통합과 농촌계획. 51-78
- 서규선·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서만용·구자인.(2005). 귀농자의 농촌 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145-17.
- 서미경·김정석.(1995).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15-2. 97-116.
- 서병숙·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송미령·박주영·성주인·김용렬.(2007).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대균.(1984). 「한국농촌정주권개발의 이상모형과 행정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윤철·김동섭·배성의·윤준상.(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개발연구(1998): 59-70.

윤순덕.(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동현.(2007). 「농촌 입지유형별 농촌정주요인의 비교 연구 :경남 고성군 지역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동화.(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수 외.(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이시자.(2010).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곡성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관.(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창희.(2005).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덕기(2009). 농어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요인분석 :전남지역 4개 시군 농업인 조사를 중심으로. 「전남비전21」. 62. 105-125.

장덕기.(2010). 전남지역 귀농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전라남도 강진군 귀농 농가를 중심으로. 「녹색전남」. 63. 14-15.

정지용·임형백.(2000). 농촌도시화의 역기능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6-2. 43-42.

정철영.(1999).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26.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사회과학」 49. 33-258.

최원규·백승우.(2001). 「IMF 이후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 나눔의 집

충남발전연구원.(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경혜·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한덕웅.(1993). 「조직행동의 동기이론」. 서울: 법문사.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Publishing.

Fielding, G. J.(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cations.

- Lee, On-Jook & Kim, Kyong-Dong.(1980). Migration and Adaptation to the City: Comparative Profile of Returns and Stayers in Korea. *Bulletine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8.
- Moore, J. M.(1971).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and the Ca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5: 293-294.
- Neugarten, B. L., Havighurt, R. J., & Tobin, S.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No. 2, 134-143.

The Integrative Impact-Relationship between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Farming Returnees and Its Factors

Park, Sung-Bok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tegrated impact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evant to the rural life satisfaction of rural returnees, on the basis that rural satisfaction is considered to be a factor in re-adjustment to rural life. The impact factors that are examined are those which determine a return to farming: urban discharge and rural inhale, pre and post policy support, return-to-farming preparation, and settlement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and rural life satisfaction are subsequently identified and measured. In order to contribute to policy and practices for supporting rural returnees and their rural life satisfaction, the direct and indirect paths of related variables are identified, along with the intermediate effects of preparation for rural return and settlement satisfaction.

[Key Words: Rural life satisfaction, Return-to-farm determining factors, Settlement satisfaction, Integrated impact relationship,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analysis]